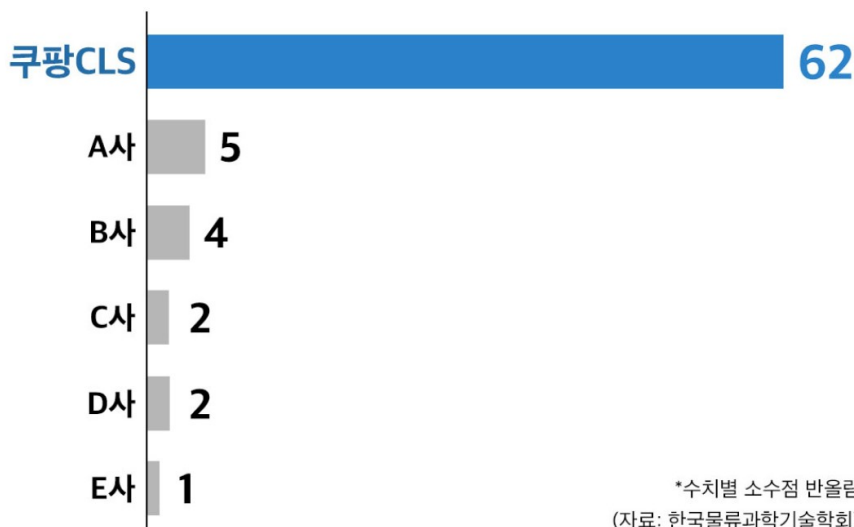


[보도자료] 주5일제 확산으로 매일 6000명 휴무, 3명 중 1명 꼴 “쿠팡은 매일 택배 쉬는 날”

2025. 8. 11.

택배사별 주 5일 이하 업무비율 (단위: %)



택배사별 주 5일 이하 업무비율 쿠팡CLS 62%_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 CLS 전체 위탁배송업체 택배기사 중 30%는 휴무 중으로, 매일 6000명에 달해
-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 비결은 백업기사 시스템으로 주 5일 이하 배송 여건 조성
- “백업기사 시스템으로 자유로운 휴무 가능, CLS는 매일매일이 ‘택배쉬는 날’인 셈”

2025. 08. 11. 서울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매일 전체 위탁배송업체 택배기사 중 휴무를 취하는 기사 비율이 30% 이상에 달하고, 그 수가 6000명 이상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고 날마다 전체 위탁배송기사 3명 중 1명은 휴무를 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같이, 위탁배송기사들의 충분한 휴무를 취하며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되고 있는 것은 CLS가 업계 최초로 백업기사 시스템을 도입해 위탁 배송기사들이 주 5일 이하 배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CLS는 위탁배송업체가 계약 단계부터 백업기사를 확보해야 위탁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CLS 자체 배송인력(쿠팡친구) 배송 지원 등을 통해 백업기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안착시켰다.

최근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CLS는 위탁배송업체 택배기사의 주5일 이하로 배송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62%로 타사(1~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 6일 구조가 고착화된 일반 택배사는 평소에 백업기사를 확보하기 보다 결원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외부 인력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LS의 높은 휴무비율은 백업기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택배업계에서 배송기사의 휴식권은 구조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쿠팡은 위탁 단계에서부터 백업기사를 확보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며 “이는 단순한 업무환경 개선 차원을 넘

어, 지속 가능한 물류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관계자는 “CLS만의 백업기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위탁배송업체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자유로운 휴무가 가능한 업무여건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며 “CLS는 매일매일이 ‘택배쉬는 날’인 셈”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